

弔 辭

대한불교관음종 제6대 종정이신 남천 죽산 대화상은 그 존재만으로도 종단의 위상을 굳건히 하셨으며 종풍 선양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런 죽산 종정께서 이렇듯 입적하셨다니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불교계를 대표하여 전 불자들과 함께 죽산 종정의 열반을 깊이 애도하며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비롯한 종도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일찍이 조계종단과도 깊은 인연을 맺었던 남천 죽산 종정께서는 32안거를 성만할 만큼 두타행이 깊었고 후학에 대한 가르침이 남달라 종지가 뚜렷하였으며 속세의 출현은 적었으나 그 울림은 사바세계에 두루 미쳤습니다.

당연히 죽산 종정에 대한 종도들의 외경심이 나날이 깊어지는데 홀연히 일대사 인연을 접었다는 소식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죽산 종정께서는 생전에 제중생의 접화에도 각별한 애정이 있었으니 비록 몸은 산에 있었으나 ‘수행, 용맹정진’ ‘사미율의’ 등의 저서를 통해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남(指南)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죽산 종정을 흠모하고 뜻을 같이 기리고자 한다면 평생 종정께서 보여주신 삶대로 서로가 화합하고 제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수행이력을 쌓아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국불교계가 뜻을 모아 이렇게 일을 도모한다면 우리 민족과 국가가 어떠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종교로서 국민과 한 몸이 되어나가는 길이며 죽산 종정의 유지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남천 죽산 종정의 영전에 청정한 향을 사루어 올립니다.

비록 몸은 서방세계에 화하였으나 중생의 애민한 정을 생각하시어 언제나 우리의 소리에 응하여 주시옵소서.

불기 2554년 11월 27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합장